

# 전북 누리과정 미교부금 문제 풀려

### 유성엽 위원장, 김상곤 교육부총리에게 전북에 762억 지급 약속 받아내... 도청-교육청 갈등도 풀릴 듯

2년 가까이 갈등을 빚고 있던 전북 누리과정 문제가 마침내 국회에서 해결됐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정·교)는 김상곤 교육부총리에게 전북교육청 누리과정 미교부금 762억 지급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다.

지난해 전북교육청은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연성하면서 교육부로부터 2017년 보통교부금 762억 원을 교부받지 못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이의신청을 냈지만 이마저도 수용되지 않으면서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도 지속되어 왔다.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유성엽 위원장이 적극 해결에 나섰다. 지난 24일 실시된 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유 위원장은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을 대상으로 직접 질의하며 해결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교육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면 내년 보통교부금에 미교부금 분을 포함하여 조정 교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며, 전북교육청과 교육부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 위원장이 제시한 해결책에 대하여 교육부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승환 전북교육감 또한 이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전북교육청은 유 위원장의 지적대로 향후 교육부에서 미교부금 762억 원을 교부하겠다는 약속을 해줄 경우 어린이집 예산편성 등을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마침내 일주일 뒤 열린 교육부



한손엔 현수막, 한손엔 악수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마친 뒤 공영방송 규탄 등 현수막 시위를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종합감사에서 유성엽 위원장이 김상곤 교육부총리로부터 미교부금 762억 원을 전북에 교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이로써 약 2년 간 지속된 갈등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유성엽 위원장은 "그동안 충분히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교육

부와 전북교육청 간 이견으로 애꿎은 전북도민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부가 762억원의 미교부금을 지급하겠다고 확인한 만큼, 전북교육청은 이를 신속하게 집행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가 확실한 바에 따라 미교부금 762억원을 지급하게 되면, 전북지역 어린이집 운영자들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해소될 뿐 아니라 현재 누리과정 비용 선대납으로 인해 도청과 교육청이 빚고 있는 갈등 사태도 일거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성 기자

## 어린이 놀 권리 보장 관련 공청회



### '아이들에게 빼앗긴 놀이 찾아 주자' 송지용 운영위원장, '어린이 놀 권리' 공청회

전북도의회 송지용 운영위원장은 1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교수, 장학관, 학부모 등이 참여해 토론했다.

송지용 위원장은 "예전에 우리들은 놀이가 인성교육의 장이 되었다"며, "요즘 아이들은 혼자서 스마트폰만 가지고 놀면서 인성교육 부재로 인한 많은 사회적 병폐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빼앗긴 놀이를 찾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광명 교수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아동권리현장 제정 등 어린이의 놀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정국 교수는 "어린이들은 놀이를 통해 신체, 정신이 발달하고 행복해진다며 체육의 3대요소 지도, 프로그램,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생각을 반영하여 놀 수 있는 시간과 공간 및 장애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대안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 당정 '혁신성장'에 역량 모으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당정협의를 갖고 혁신창업국가 실현을 위해 혁신 생태계 조성 및 혁신 인프라 구축에 정책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김태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낮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창업 활성화 방안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을 회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의 부활과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일반인의 창업에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주도 TIPS 프로그램 방식(민간이 지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해당기업에 R&D 자금 지원하는 제도)을 창업·벤처정책 전반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뉴스

## 文대통령 "평등·공정한 기회 갖도록 적폐청산"

### 국회 시정연설... 국정원·검찰 개혁·채용비리 근절 등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사회가 따로 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뀌어나가겠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라며 ▲국가정보원 개혁과 국내 정치 절연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과 문책 등을 언급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다.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하겠다. 저의 의지는 확고하다.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처럼 무겁다"면서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다.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이 국민의 기회를 빼앗는 일도 없어야 한다. 최근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줬다"며 "공공기관이 기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해 부정행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다. 정부는 국가기관과 공공부문, 더 나아가 사회전반의 부정과 부패, 불공정이 국민의 삶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갈 것"이라며 "더이상 반칙과 특권이 용인되지 않는 나라로 정의롭게 혁신하겠다. 그 일에 국회가 함께해주시길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뉴스

### 김관영, "국민권익위, 검찰관련 민원 손 못 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범정부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는 국민권익위가 정작 검찰관련 민원인 경우 검토도 하지 않고 검찰로 이송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김관영 의원은 31일 열린 국회 정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권익위가 검찰관련 고충민원 처리 내역을 분석한 결과 100% 검찰로 이송한 사실을 공개하고, 이 과정에서 사안에 대한 점검조차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이와 함께 민원은 가능한 제3자가 중립적이고 엄중하게 처리해야 제대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라며 검찰 관련 고충처리에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국민권익의 신장은 물론, 검찰 개혁의 밑거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검찰관련 민원은 3,708개에 달하고, 이중 반복 접수된 민원 등을 제외하고 검찰에 이송된 민원이 2,415개를 기록했다.

검찰이 이미 접수된 소속 검찰 또는 수사관의 비위와 수사 지연 등 공무원의 태도 민원 처리에 있어서 자기식구 감싸기 했다는 민원을 다시 검찰에 재이송한 경우도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반복민원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공무원들의 소극행정, 불친절 등의 내용이 주종을 이뤘다"며 "이들 상당수가 검찰에서 민원처리가 미진해 재접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이며 "권익위가 자체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키우는 '민원토스'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진성 기자

2017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예향 전주에서 세계서예인의 축제가 열립니다.

서예의 아름다움을 세계인이 함께 나누는 문자예술의 축제  
2017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맛과 소리와 서예의 고장 전북에서 열립니다.

**2017. 10. 21<sup>±</sup> - 11. 19<sup>日</sup>**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예술회관

제11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2017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순수와 융합

2017. 10. 21<sup>±</sup> - 11. 19<sup>日</sup>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예술회관

■ 행사안내		
서예는 행운을 싣고 - 매주 일요일 16시 추첨	로비	
명사서예전		
생활서예전	갤러리 S	
세계한국문화원 서예 수경생전		
서론서예전		
작가와외 만남 -10.28(토) 호암 정충용 / 11.11(토) 한봉 최수일	갤러리 O	
탁본체험		
나도 서예가	갤러리 R (로비)	
서예, 책을 만나다전		
서론서예전		
전, 서각의 어울림전	갤러리 R	
경필서예전		
양생서예전	갤러리 I	
전북우수활동작가서예전		
등불서예전	아외전시	
JS호텔	학술대회 -10월 22일	세미나홀
전북 예술회관	2015기념공모전 대상작가 초대전	
	기념공모 초대작가전	
	2017기념공모전	
국립 전주박물관	석전 황옥전	
	선인들이 즐겨 쓴 중국 글씨 본	
김암서예관	김암 송성용전	

주최 **전라북도**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민족문화추진회** **Art Council Korea** **ILJIN** **일진그룹**

주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